

한복 여자두루마기 원형설계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Standardization of Pattern Design of Korean Traditional Women's Durumagi*

조선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정옥임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sun University
Professor : Jung Ok 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고찰 | |

<Abstract>

So far, the graphics of Korean clothing have focused on maintenance of forms without specific improvement. In particular, in the archetypal design of a Jeogori, ambiguous standards on the overlapping of left and right collars and collar strips cause problems in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Korean traditional clothing. As a result, the graphics of men's Durumagis based on a Korean Jeogori have the same problems as Jeogoris and the connection between them has not been sufficiently studied. Design of "Moo" in respect to graphics of men's Durumagis has its own calculation equation or measures, but they can not be generalized. This study therefore considers the existing graphics of men's Durumagis or approaches of Moo in different angles by reviewing the connection between Durumagis and Jeogoris. Therefore, archetypal forms of Durumagis are designed with a radius of a circle using one's height and the girth of one's chest, which contributes to symmetry of the collars and learning effects through scientific graphics of "Moo." It is further expected that can be mass-produced through archetypal design of overcoats and graphics of "Moo" of Durumagis that can be standardized as well as connection between graphics of Jeogoris and Jeogoris.

주제어(Key Words): 저고리(Jeogori), 두루마기(Durumagi), 연계성(connection), 원의반지름(radius of circle), 무의설계(design of Moo)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복에서 구성은 부분과 부분을 융합하여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인체에 두르거나 착용하여 사지를 감싼다는 의미에서는 각 민족 간의 옷이라 하더라도 공통적이지만 인체에 착용하여 나타난 형태나 구성방법에서는 다른 경우가 많다. 두루마기의 형태는 다른 어떤 나라의 의복과도 구별되는外衣로 형태나 구성방법에서 저고리 구성방법과 유사하지만 단지 옆 겨드랑 선에서 도련을 향해 삼각형의 무가 들어가 아래로 내려올수록 폭이 넓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만이 다르다. 이 구성방법은 옷의 외곽선이 사다리꼴 모양을 이루므로써 직선으로 실루엣 선을 만들어 내는 서양식 외투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실루엣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구성방법에 영향을 준 것은 착용형태로 볼 때 두루마기 안에 입게 된 옷, 즉 치마저고리의 실루엣이나 바지저고리의 실루엣을 감싸기 위한 구성방법일수 있고 또는 직물의 폭이 좁은 무명이나 삼베, 명주 같은 가내수공업적인 옷감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좁은 폭의 옷감으로 넓은 폭의 실루엣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이 무로 정착된 것이라고 보여 진다. 이 구성방법은 폭이 넓은 직물을 생산해내는 오늘날에도 무를 따로 마름질하여 붙이는 바느질법을 고수하고 있어 두루마기로서의 특징적 형태를 이루게 되는 차별화 된 우리 옷이라 할 수 있다.

周衣는 상류층의 방한용 옷으로 혹은 겉옷의 밑받침 옷으로 상민계급에서는 겉옷으로 착용되었다(김인숙, 1982: 201). 두루마기라 함은 전의의 폭을 쪽 돌아가면서 다 막은 것이라 함이니 대개 옛날 남자의 옷에는 兩脇 밑에 '무'가 없이 개통된 것과 '무'가 있어 봉합한 것과의 두 종류가 있음으로 兩脇下가 터져 세 폭이 따로 도는 창옷이란 것에 대하여 두루마기는 곧 全衣가 휘돌아서 다 막힌 것임을 나타내는 이름이다(유희경, 1977: 632) 또 白氈衣의 禁命 후 朝士間에 新制의 中衣를 만들어 그 색을 白으로 한 것이 周衣의 시작이라 한다(권계순, 1965: 76)고도 하였다. 따라서 두루마기는 갑오경장 이후 袍類를 대폭 고쳐 道袍나 氈衣를 폐지하고 窄袖衣로 바뀌면서 周衣가 등장한 것(박영순, 2000: 140)인데 갑자기 시행한 의복개혁은 국민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혔으나 10년 후에는 모두 두루마기를 입었다(권오창, 1998: 86)고 한 것으로 보아 이것은 고종 및 개화파의 평등사상이 복식에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두루마기의 원형은 소창 옷에서 발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창의는 襖가 없었고 3자락이며 소창의에 무를 달고 양 쪽을 막으면 周衣(두루마기)가 된다(백영자, 최해울, 2004: 211)고 하여 두루마기가 창옷에서 연유하였음을 밝혔다. 오늘날 두루마기는 그 착용빈도가 많지는 않게 되었지만 그 명맥만은 꾸준히 이어져 재질

에 있어서는 고급화추세에 있다. 그러나 제도방법에서는 저고리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산출방법이 각각이고 섹을 중심으로 한 제도법으로 인해 좌우 깃 겹침의 부조화와 앞 목 노출인 V-Zone의 좌우 길이의 차는 저고리에서의 문제점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고리 위에 입는 두루마기는 치수에서만 차이가 날뿐 길이를 제외하면 구성형태가 저고리와 같기 때문에 저고리 원형산출방법이나 제도법이 母型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형설계나 제도 산출방법은 저고리의 원형설계나 산출방법을 근간으로 연계성 있게 구성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고리 제도에 대해 이미 이루어진 선행연구(정옥임, 1994a; 정옥임, 1996b; 정옥임, 2000c)와 저고리원형설계(정옥임, 2002d)를 근간으로 하여 저고리와 연계성을 갖는 두루마기원형이면서 표준화할 수 있는 襖의 구성설계방법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그래서 기존의 교수·학습자료에 제시된 두루마기 제도상의 문제점을 깃 중심 원형제도 법으로 개선하고 특히 두루마기 무의 제도방법에 대한 표준화 가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옷은 인체의 치수를 근간으로 하여 만들어 내지만 옷을 껴입는 外衣일 때는 겹쳐 입는 가짓수만큼 여유분도 가산되어야 함은 기본이다. 두루마기는 치마저고리 위에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옛날처럼 갖추어 입을 때는 저고리 위에 마고자를 입고 그 위에 두루마기를 입기도 한다. 이때 저고리 위에 두루마기를 입는 것과 마고자까지 입고 두루마기를 입을 때의 옷에 가산되는 여유분은 당연히 다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착용습관인 저고리 위에 입는 두루마기 제도법을 기준으로 여유분을 가산하고자 하며 치수는 한국인의 평균키인 160cm에 가슴둘레 85cm, 발길이 230mm를 적용하였다.

두루마기에 대한 연구내용으로는 선행 연구된 저고리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좌우 깃 교차점의 설정방법과 두루마기 무의 길이, 그리고 무의 넓이 산출법을 키 치수를 적용하여 도출해 보고자하며 그 외의 제도방법은 저고리 원형제도에 따르고자 한다. 여기서 선행 연구된 저고리 원형제도법은 특허등록된 연구자의 제도법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비교 연구된 두루마기 원형 제도법은 대학교재와 이에 준하는 교수·학습자료 만을 내용으로 하였는데 제도법에 대한 것 중에는 연구자의 이해부족으로 原典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밝혀준다.

본 연구는 연구의 내용진개를 위하여 각종 원형제도법을 아래와 같이 표기하고자 한다.

정옥임 : H형(정옥임, 2002:202-205)

조정희 : I형(조정희, 1998: 167-168)

※ 원형제도법 표기

권계순 : A형(권계순, 1965: 111-112)

김분칠 : B형(김분칠, 1988: 153-153)

박경자·임순영 : C형(박경자·임순영, 2002: 231)

박선영 : D형(박선영, 2002: 217-218)

박영순 : E형(박영순, 2000: 142-147)

손경자 : F형(손경자, 2000: 164)

이주원 : G형(이주원, 2006: 221-222)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두루마기 원형설계와 저고리 원형설계와의 연계성

두루마기는 옷 위에 겹쳐 입는다는 특수성 때문에 원형설계를 할 때는 겹쳐 입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外衣로 인해 바로 아래에 착용한 의복의 형태가 망가져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여유분의 설정이 필요하게 된다. 적절한 여유분이란 각각의 상황에서 동작적응에 불

〈표 1〉 교수·학습자료에 나타난 두루마기 원형제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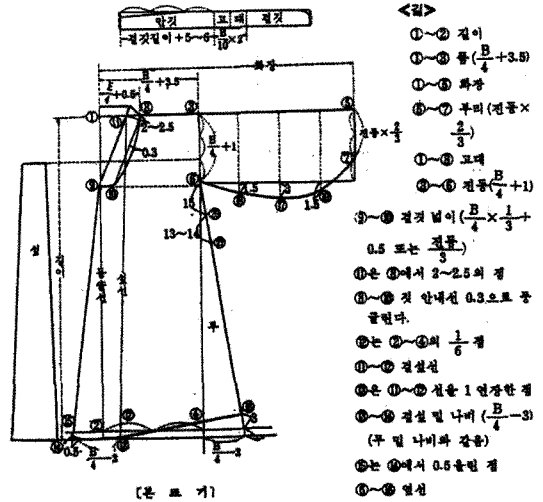
단위 : cm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	G형	H형	I형
품	B/4+3.5	B/4+2.5	B/4+5~7	저고리품+4	B/4+3	B/4+3.5	B/4+3.5~4	B/4+3.5	B/4+3~5
진동	B/4+1	B/4+2	B/4+4	23	B/4+2	등길이의11/16	B/4+3	B/4+2	마고자진동+1
깃고대	B/10+0.5	저고리깃고대+0.5	B/10		(B/10-0.5)+1	B/4×1/3	B/10	B/10+1	(B/4+B/8)-0.5
화장	70			저고리화장 +1.5=71	저고리화장 +1~2	저고리화장 +1	저고리화장 +2	저고리화장 +1	마고자화장 +2
겉깃길이	27		B/4+1				진동길이 또는 진동길이+1	제도상에서 산출	
겉섷나비	섷선을그리 면결정됨	(아래나비 ×2/3)-2	깃나비+2		깃고대의 2/3+0.2	겉깃나비	아래나비 ×1/2	제도상에서 산출됨	7
겉섷아랫나비	B/4-3	B/4×3/5	품×4/5	17	(B/4+3) ×(3/5-1)	품/4×3/4	두루마기뒤품 /2×3/5	(B/4+3.5) ×1/4	16
안섷나비	안섷선과 안깃길이가 만나는2/3선	아래나비/2	깃나비(8)		(겉섷 아래나비 ×3/4)-5		아래나비/2	제도상에서 결정	6
안섷아랫나비	진동/3을 지나 는선과겉깃 길이+5~6을 내린안깃길이 의2/3과안섷 아랫나비B/4-3 을 연결한나비	겉섷×3/4	겉섷-5		겉섷아래 나비×3/4	겉섷아래 나비-5	겉섷아래 나비×3/4	제도상에서 결정	15
겉섷선	깃고대점 -2~2.5와 (B/4) ×1/6점을 연결한선	저고리품 /5의수직선				깃고대/2× 1/2수직선±1	2-3cm 기울개	깃각에서깃 너비만큼올 라간점과도련 끝점을1.5cm 사선으로연결	고대의3/4과 중심선-1~2 점과연결
무나비	B/4-3	겉섷아래 나비-3	19	16	(B/4+3)×3/5	B/4×3/4	두루마기뒤 품/2×4/5	20	품/4의3/4수 직선과겨드랑 이접하는선
깃나비	진동/3	겉섷나비 ×4/5		5.5	6		겉섷나비 ×4/5	저고리깃 나비+1.5	4.2
수구	(B/4+1) ×2/3	B/4×3/5	(A.H/2+2) ×2/3	14	(B/4+2) ×3/5	(등길이의 3/4)×3/5	저고리 부리+1	진동×2/3	14
길이	110	총길이 -25~30	115	총장-20 =115	총장-(25 ×30)=115	120	총길이-20 ~25=115	총길이 -발길이	115
등길이				25×26		등길이- 등길이/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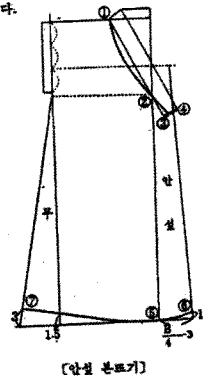
편하지 않은 운동량으로 이것은 인체와 의복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옷과 옷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체 바로 위에 걸치는 속옷의 여유분과 평상복에 가산되는 여유분이 다르게 된다.

옷과 옷의 관계에서 볼 때 동일한 계열이거나 이와 유사한 계열의 옷일 때 구성설계는 반드시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저고리와 두루마기는 같은 계열로서 착용면에서도 순서를 이루고 있음으로 인해 옷의 원형설계에서도 당연히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그림 1>은 교수·학습 자료에 제시된 두루마기 원형설계방법을 그대로 模寫한 것이고, <표 1>은 각각의 항목에 적용된 산출 법을 비교 한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D형>과 <F형>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품과 진동, 깃고대에서 여유분만 다를 뿐 산출식이 같다. <D형>은 치수를 제시하고 있고, <F형>은 진동에 등길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하겠다. 그러나 <표 1>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외의 항목에서는 대부분 산출식이 각각이고 또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산출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원형제도 가 실제로 제도했을 때 각 원형 간에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 2>는 <표 1>의 원형제도 법에 가슴둘레치수가 85cm인 동일치수를 적용하여 산출 값을 비교해 본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품은 최고12cm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진동에서는 3cm의 차를, 그리고 깃고대에서는 1.5cm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품과 진동과의 여유분 관계에서 <F형>은 품과 진동이 같고, <D형>은 4cm차이를 보이며, <B형><C형><G형><I형>은 1cm차이를, <H형>은 2cm차이, <A형>은 3cm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품과 진동과의 관계에서 특히 두드러진 패턴은 <F형>으로 품과 진동이 같은 경우와 <A형><B형>처럼 3cm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이다. 그리고 걸쌌아래나비에서는 최하14c~최고20cm로 6cm차를, 안쌌아래나비는 10~18cm로 8cm의 차가 나며 무 나비는 13~20cm로 무려 7cm차를 보이고 있

다. 수구에서도 최고 2.5cm의 차이가 나게 설계되어 있고, 바닥에서 목뒤 점까지의 총길이를 135cm로 했을 때의 두루마기길이에서는 10cm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



- ⑤, ⑥, ⑦, ⑧ 점을 연결하여 평도선을 그린다.
 - ⑨은 ⑩-⑪의 중심선을 3연장한 점
 - ⑫는 ⑬-⑭의 1/4선을 1.5연장한 점
 - ⑮, ⑯, ⑰, ⑱ 점을 자이스터후 곡선으로 연결하여 평도선을 그린다.
 - ⑳ 아귀 (13-14)
- <안깃·안쌌>
- ①-② 겹깃 길이와 장용
 - ①-③ 안깃 길이 (겹깃 길이+5-6)
 - ③-④ 안깃 밑 넓이 (깃 넓이 × 2/3)
 - ⑤-⑥ 안쌌 밑 넓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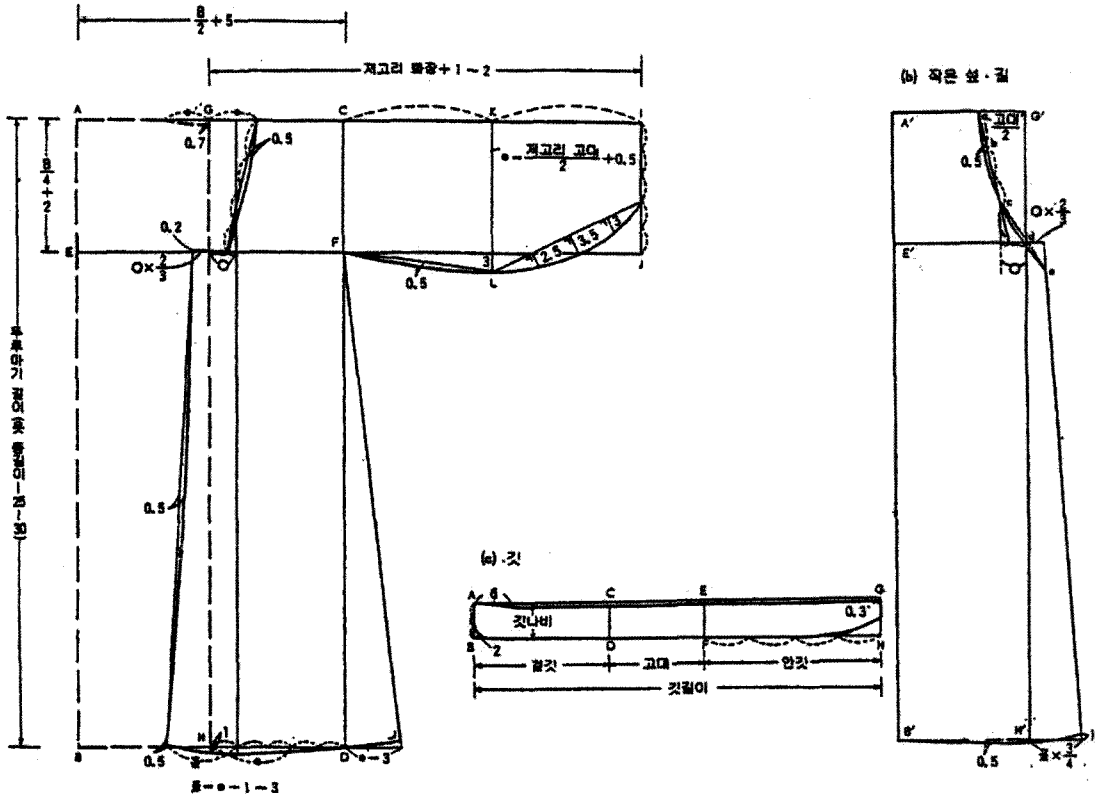
<그림 1> A형

<표 2> 각각의 두루마기제도법에 동일치수를 적용했을 때의 산출값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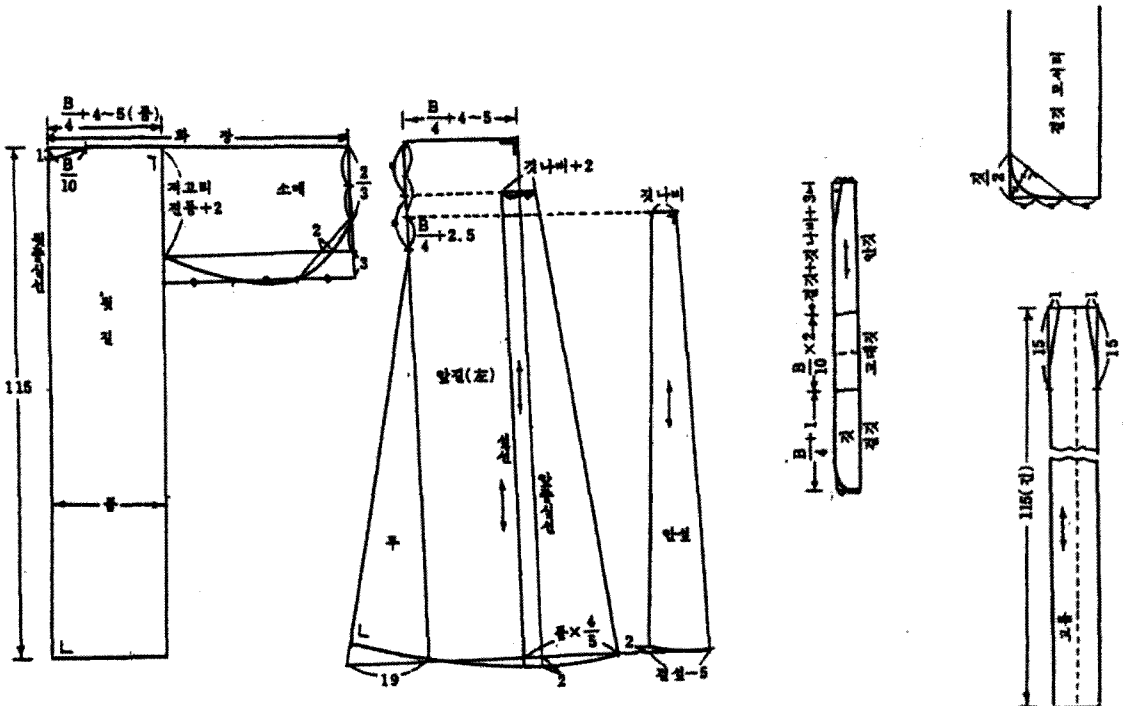
단위 : cm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	G형	H형	I형
품	25	24	26~28	27	24	25	25	25	24~26
진 동	22	23	25	23	23	25	24	23	23
깃고대	9	10	8.5	8*	9	8	8.5	9.5	9
걸쌌아랫나비	18	14	16	17	15	19	18.5	20	16
안쌌아랫나비	18	10.5	11	11	10		14		15
무나비	18	13	19*	16*	14.5	16	20	20	18
수 구	15	14	15	14*	14	16.5	14	15.5	14
길이(135)	110	115	115	115	110	120	115	105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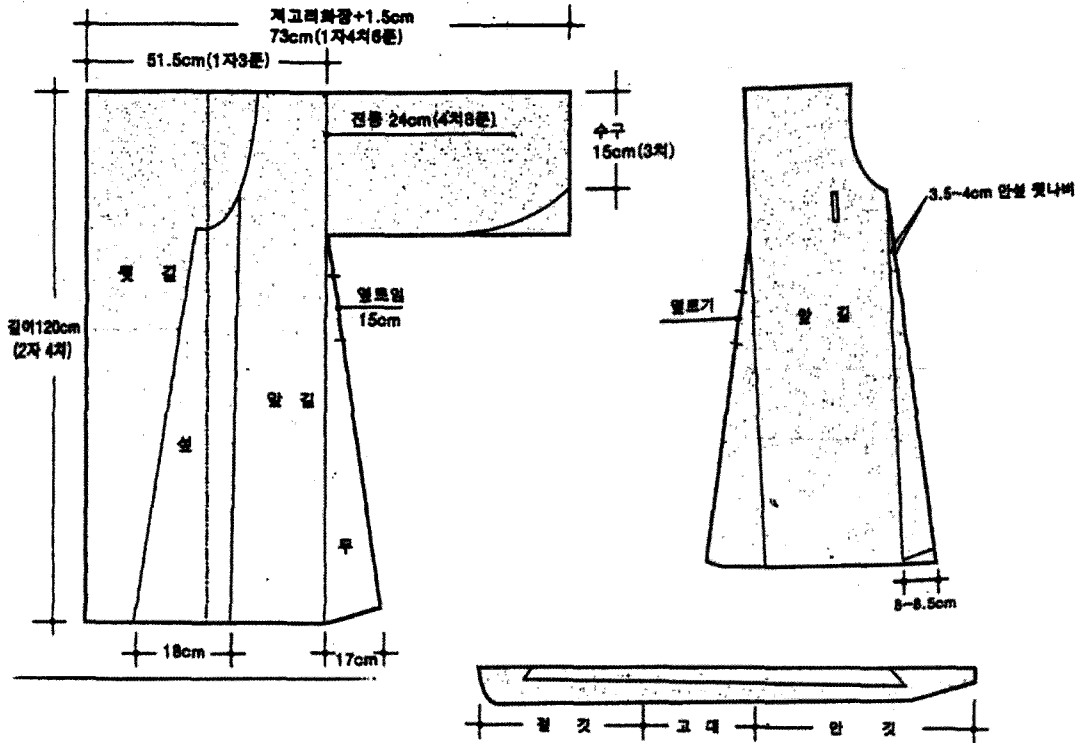
* 제시값 ※ 동일치수=가슴둘레 8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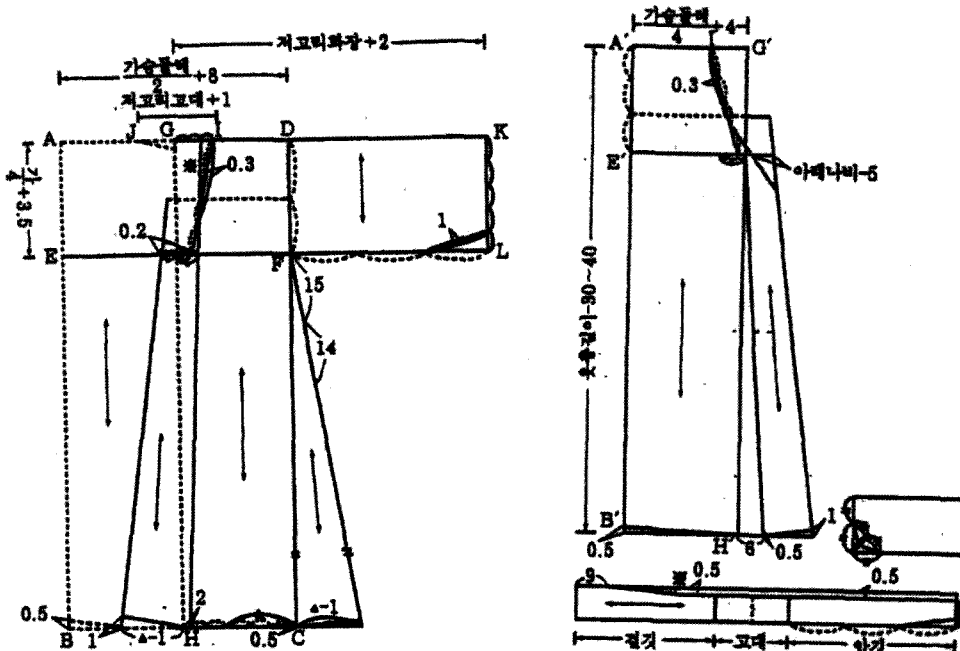
〈그림 2〉 B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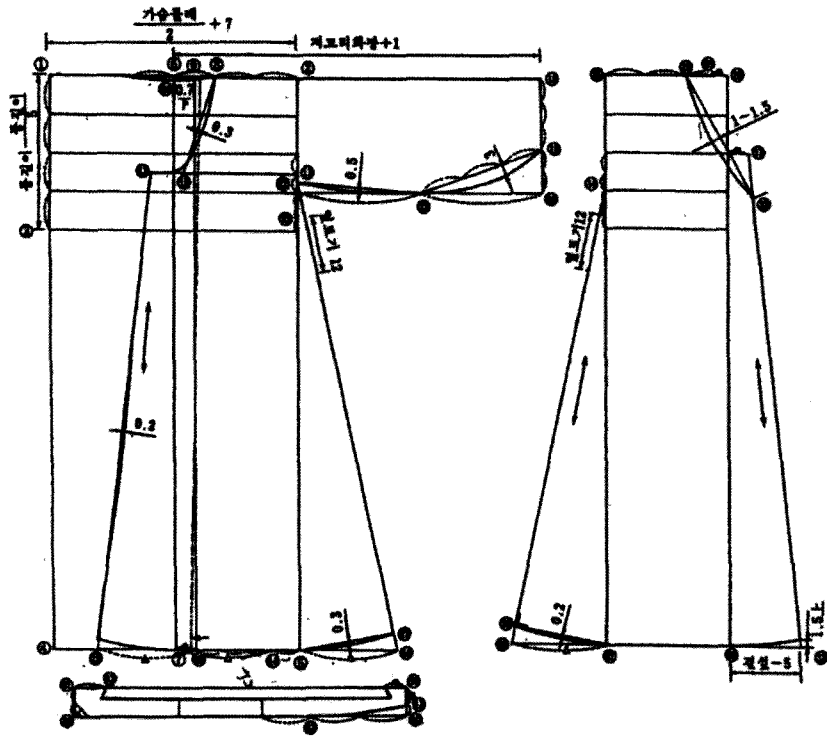
〈그림 3〉 C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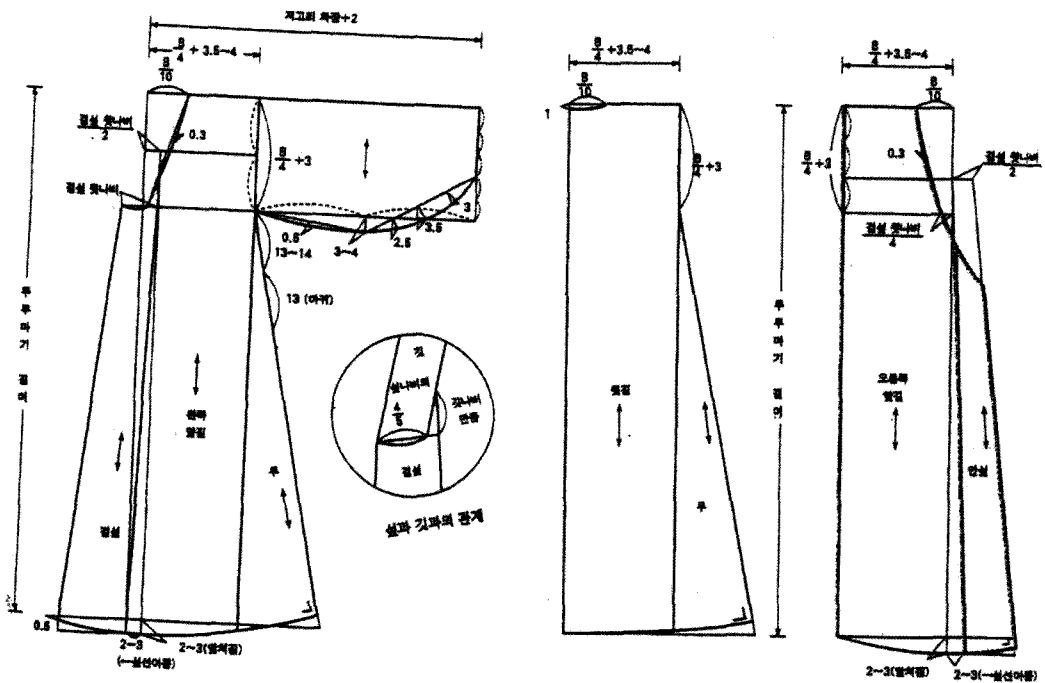
〈그림 4〉 D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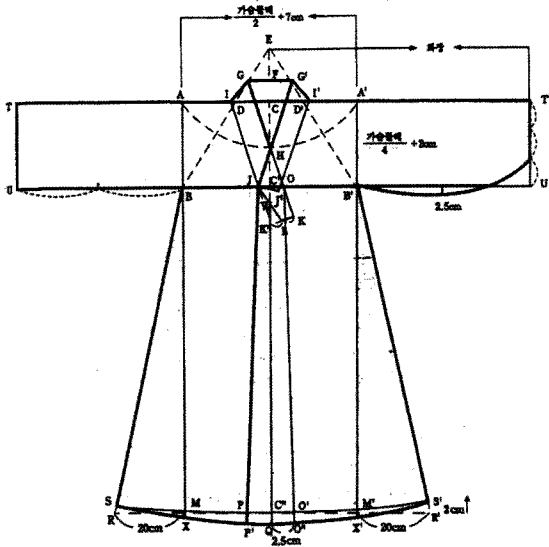
〈그림 5〉 E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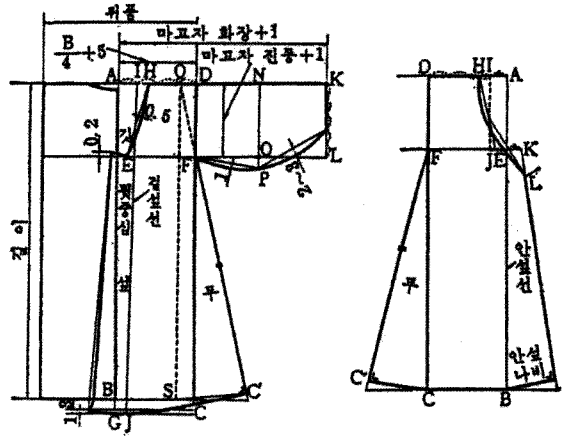
〈그림 6〉 F형



〈그림 7〉 G형



〈그림 8〉 H형



〈그림 9〉 I형

나라 학습 자료에 제시된 치수 값과 산출 값이 다른 제도법도 있었는데 〈B형〉은 진동의 제시 값을 24cm로 하였으나 23cm로 하였고 겹선타래나비에서는 제시 값이 14cm이나 산출 값은 15cm이며, 〈I형〉은 진동 제시 값이 24cm이나 산출 값은 23cm 이었다. 산출 값과 제시 값이 다른 무 나비와 수구에서도 볼 수 있는데 〈B형〉은 무 나비 제시 값은 18.5cm이나 산출 값은 13cm이었으며 〈C형〉은 산출식 없이 제시 값으로 대신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제도할 때의 표준치수 설정과도 관계가 있고 품과 가슴둘레의 착오에서 비롯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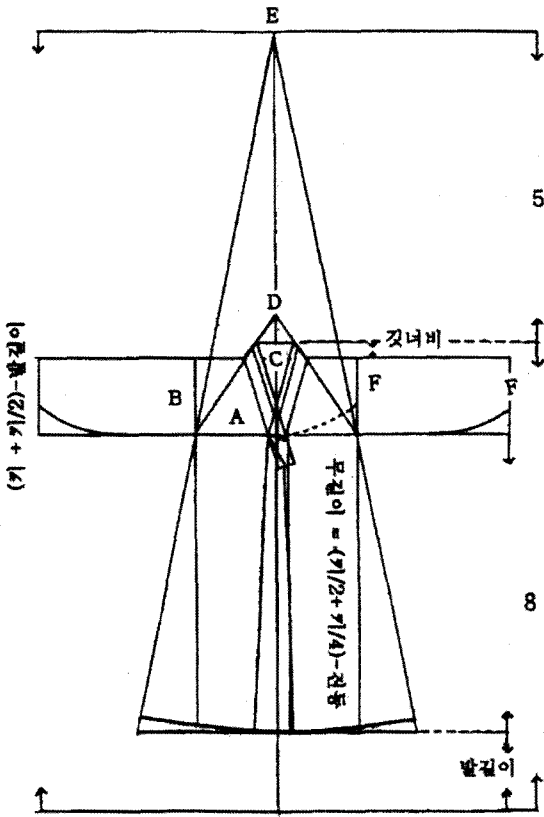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

다음〈표 3〉은 두루마기 제도 법에서 그 제도법의 母型이 되는 저고리원형과의 연계성을 살펴본 것이다. 각각의 원형에서 두루마기의 치수는 치마, 저고리를 착장한 후 또는 저고리위에 마고자를 입고 난 후에 입는 의의이기 문에 전 항목에서 아래에 착용된 의복 보다는 커야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표 3〉은 저고리 제도법을 근간으로 두루마기의 제도법과 여유분 치수를 비교해 본 것이다. 연계성에서 보면 〈A형〉〈B형〉〈E형〉〈G형〉〈H형〉은 연계성이 있고 연계성 범위로 볼 수 있는 것이 〈F형〉〈I형〉이다. 〈C형〉은 진동에서 연계성이 없고 〈D형〉은 대부분 치수 값만으로 제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숙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A형〉은 두루마기 품

〈표 3〉 저고리와 두루마기원형설계의 연계성과 여유분 비교

단위 : cm

	저고리품 (1)	두루마기 품(2)	(2)-(1)의 차이	저고리 진동(3)	두루마기 진동(4)	(4)-(3)의 차이	저고리 깃고대(5)	두루마기 깃고대(6)	(6)-(5)의 차이	비고
A형	B/4+2.5~3	B/4+3.5	0.5~1	B/4	B/4+1	1	B/10	B/10+0.5	0.5	연계성
B형	B/4+1.5	B/4+2.5	1	B/4	B/4+2	2	품/12+ 깃나비/4	(품/12+깃나 비/4)+0.5	0.5	연계성
C형	B/4+2	B/4+5~7	3~5	AH/4+1~2	B/4+2.5	2.4	B/10-0.5	B/10	0.5	저고리진동 과두루마기 진동산출법 이다름
D형	B+5/4	① 품/4+2	2	21.5	23	1.5	7.75~8	산출식없음		치수값으로 만 제도
E형	B/4+2	B/4+3	1	B/4	B/4+2	2	B/10-0.5	(B/10-0.5)+1	1	연계성
F형	B/4+2	B/4+3.5	1.5	B/4	동길이의 11/16	3.5	품/4×1/3	두루마기 품/4×1/3	0.65	연계성범위
G형	B/4+1.5~2	B/4+3.5~4	2~2.5	B/4	B/4+3	3	B/10-0.5	B/10	0.5	연계성
H형	B/4+1.5	B/4+3.5	2	B/4	B/4+2	2	B/10	B/10+1	1	연계성
I형	B/4+2	B/4+5	3	B/4	마고자진동 +(B/4+2)	2	(품/4+ 품/8)-0.5	(두루마기품 /4+품/8)-0.5	1.3	연계성범위



〈그림 10〉 두루마기 제도법의 표준화를 위한 원형설계

치수와 저고리 품 치수와의 차이가 0.5~1cm밖에 안되어 입었을 때 외양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C형><G형>은 품과의 차이가 3~5cm로 넉넉한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I형>은 3cm 차이이지만 저고리 품이 아닌 마고자를 기준으로 한 차이치수이기 때문에 저고리치수로 계산한다면 2.5cm가 된다고 본다. 또 저고리 품과 진동에서 보면 품과 진동의 차가 1cm나서는 원형설계는 <B형><E형><G형>이고, <A형><H형>은 2cm, <F형>은 같다. 그런데 <I형>은 3cm 차이가 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옷과 옷 사이의 보온 면에서 보더라도 다소 크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D형>은 1.5cm 차이를 두어 저고리에서 진동과의 차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여유분에 대한 연계성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C형>은 1cm에서 3cm의 범위 내에서 응용할 수 있게 설계함으로써 적용방법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방법은 초보학습자가 학습하는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진동설계에서 등 길이 치수를 이용한 <F형>의 설계방법도 특이하다고 하겠다.

깃고대 원형설계에서는 대부분이 0.5cm 정도 차이를 두고 있어 저고리 깃고대와의 접점에서 깃고대 값이 적다고 생각되며, 또 <I형>과 같이 화장에서 마고자 화장에 2cm를 더한 길이를 두루마기 화장으로 한다면 계산상 두루마기 화장은 저고리화장 보다 무려 4cm나 길게 설계되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표 3〉은 두루마기 원형설계에서 저고리 원형설계와의 연계성을 알아보기와 원형제도에서 핵심항목이라 할 수 있는 품과 진동, 깃고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방법과 두 옷 사이의 여유분을 비교해 본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품에 대한 어깨둘레 선을 저고리 진동산출방법으로 원형설계를 했던 <C형>이 두루마기 진동에서는 가슴둘레를 이용하였고, 저고리에서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진동을 산출하던 <F형>은 두루마기진동에서 등길이를 이용하여 원형설계를 함으로써 기본이 되어야 할 원형간의 연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두루마기 제도법의 표준화를 위한 원형설계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이제까지의 두루마기 원형은 제도 방법에 있어 원형설계의 기준설정이 모호하고 어렵산출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도법을 표준화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제도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산출방법 도출로 원형설계를 이룰 수 있다면 우리옷도 표준화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림 10〉은 기존의

〈표 4〉 개선된 두루마기 설계방법과 저고리와의 연계성

단위 : cm

	저고리원형설계	두루마기원형설계	비고
길이설계	B/2(꼭지점)	키/4+키/2(꼭지점)	
품	B/4+1.5	B/4+3.5	2cm 차이
진동	B/4	B/4+2	2cm 차이
깃고대	B/10	B/10+1	1cm 차이
깃교차점	꼭지점에서좌우품선을지나는중심선	꼭지점에서좌우품선을지나는중심선	동일
화장	B/2+3	B/2+5	1cm 차이
옷길이	꼭지점과B/2길이에서결정	(키/2+키/4+진동길이)-발길이	
무릎길이		(키/2+키/4)-진동길이	원형설계에서에서 결정됨
무나비		겨드랑이점과만나는 무릎이선	원형설계에서에서 결정됨

두루마기 제도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두루마기 제도법으로 제도순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도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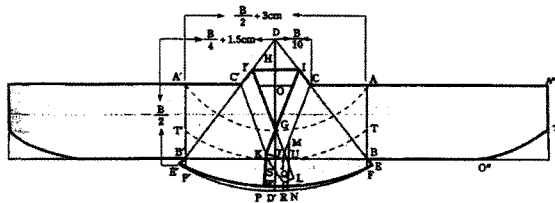
1. 키+키/2로 중심선을 그린다.
2. 키/2+키/4로 중심선을 이등분 한다.
3. 이등분된 선 좌우에 각각 B/4+3.5cm의 품을 그린다(A)
4. B/4+2cm로 진동을 좌우에 그린다(B)
5. B/10+1cm의 깃고대를 중심선 좌우에 각각 표시한다(C)
6. (키/2+키/4) - 발길이를 그린다.
7. 진동선을 발길이 까지 연장한다.
8. 진동이 되는 겨드랑이점과 깃고대 점을 연결하여 중심선과 만나도록 한다(D)
9. 깃고대 위에 깃 너비를 그린다.
10. 키+키/2가되는 정점(E)과 겨드랑이점을 연결하고 이 선을 (키/2+키/4)-발길이가 되는 선까지 연장하면 두루마기 무가 그려지고 두루마기 길이가 결정된다.
11. D점에서 어깨진동선의 길이만큼 중심선으로 내려와 깃 교차점을 표시한다.
12. 깃고대 상방에서 깃 교차점을 향해 깃 내연 선을 그린다.
13. 깃 내연 선에서 깃 나비를 좌우에 그린다.

14. 깃 교차점이 진동선과 만나는 점이 겹깃 코 점이 되며 겹깃이 된다.
15. 안깃길이는 교차점에서 중심선과 만나는 길이만큼 연장하여 이등분하여 진동선과 곡선으로 연결하면 안깃이 된다.
16. 겹깃 윗 나비는 겹깃 설계 선에서 깃 나비만큼 올라가 직선으로 내려주면 섹션이 된다.
17. E점, 또는 D점에서 두루마기 길이가 되는 중심선 길이만큼 좌우 무에 반원형을 그리면 두루마기 뒷도련이 완성되고, 앞도련은 앞처집분 2.5cm를 내려 무의 옆선과 만나도록 그린다.
18. 소매부리는 D점에서 진동선의 길이로 반원형을 그려 만나는 선이다(F)

3. 개선된 두루마기제도법과 저고리와의 연계성

두루마기는 저고리 위에 착용되는 옷이기 때문에 제도법에서도 저고리와의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표 4>는 개선된 두루마기 제도법의 원형설계방법이 저고리와 연계성 있는 설계방법이 되어 있는가를 알아 보기위해 저고리원형제도법을 제시해본 것이<그림 11>이다. 여기에서 보면 저고리와 두루마기의 제도상, 또는 원형설계상의 차이는 '비고'에서 보듯이 여유분과 길이, 그리고 무의 설계방법이라 하겠다. 적절한 여유분의 설정에 견해 차이는 있을지라도 원형설계방법으로는 표준화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표 5>는 개선된 두루마기 제도법을 이용하여 키 160cm, 발길이가 230mm이면서 가슴둘레가 85cm, 90cm, 95cm이라고 할 때 깃 나비가 5cm인 제도 값을 산출해 본 것이다.

이 제도법에서 가장 요점이 되는 좌우 깃 교차점(V-Zone)은 여유분이 가산된 앞품선과 여유분을 가산하지 않은 앞품 선 범위 내에서 깃 나비가 결정된다는 점이고 아울러 깃접침과 동정아귀가 잘 맞게 구성된다는 점이다. <표 5>에서 보듯이 산출식은 어떤 치수로도 적용 가능하다.



〈그림 11〉 두루마기와의 연계성을 비교하기 위한 저고리원형

〈표 5〉 각각의 치수에 개선된 두루마기 제도법을 적용한 산출값의 예

단위 : cm

항 목	산출식	가슴둘레			비 고
		85	90	95	
품	B/4+3.5	25	26	27	저고리품+2
진 동	B/4+2	23	24.5	26	1.5씩 커짐
깃고대	B/10+1	9.5	10	10.5	0.5씩 커짐
소 매	B/2+2.5	45	47.5	50	2.5씩 커짐
수 구	자동산출	15	15.5	16	0.5씩 커짐
무나비	자동산출	18.5	19	19.5	0.5씩 커짐
깃교차점	꼭지점에서좌우품선을지나는중심선	15	15.5	16	꼭지점과 앞품, 깃이 영향
두루마기길이	(키+키/2)-발길이		115.5		키에 의해 결정

IV. 결 론

지금까지 우리 옷 구성방법은 별다른 개선방법 없이 형태 유지로만 전수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저고리 원형설계에서 좌우 깃 겹침과 동정 겹침의 기준설정이 애매하여 교수·학습 자료로서 우리 옷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문제가 있었음도 부인할 수가 없다. 그 결과 저고리를 기본으로 제도되는 두루마기 제도 법에서도 저고리와 같은 결과를 낳고 있으며 필히 고려되어야할 연계성도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다. 특히 두루마기 제도 법에서 무(襖)에 대한 설계는 나름대로 산출식이나 치수를 제시하고 있지만 표준화할 수 있는 제도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저고리와의 연계성은 물론 고찰을 통해 지금까지 제시되었거나 사용되어온 두루마기 제도방법이나 무에 대한 접근방법을 다른 각도에서 구성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키와 가슴둘레를 이용한 원의 반지름으로 두루마기 원형설계를 함으로써 깃의 좌우대칭은 물론 과학적인 襖(무)의 제도방법으로 학습자의 학습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우리옷의 선양에도 기여하리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저고리 제도와의 연계성은 물론 표준화할 수 있는 두루마기원형설계법과 두루마기 무(襖)의 제도방법으로 치수를 체계화할 수 있어 대량생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권계순(1965). 우리 옷 변천과 재봉. 서울:수학사.
 권오창(1998). 조선시대 우리 옷, 서울:현암사.
 김분칠(1988). 한복 구성학. 서울: 교문사.
 김인숙(1982). 한국의 복식. 서울: 한국문화재보호협회.
 박경자·임순영(2002). 한국의상구성. 서울:수학사.
 박선영(2002). 전통한복 구성학. 서울:수학사.
 박영순(2000). 전통한복구성. 서울:신양사.
 백영자·최해울(2004). 한국복식의 역사. 서울:경춘사.
 손경자(2000). 전통한복양식. 서울:교문사.
 유희경(1977). 한국복식사연구. 서울:이화여대출판부.
 이주원(2006). 한복 구성학. 서울:경춘사.
 정옥임(1994). 저고리원형제도의 비교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2(1), 211-227.
 정옥임(1996). 제도법 개선을 위한 저고리 깃 구성의 재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4(4), 246-263.
 정옥임(2000). 교수·학습 자료에 나타난 저고리 원형제도의 문제점 고찰. 조선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교과교육연구, 3(1), 57-84.
 정옥임(2002) 여자한복저고리의 원형설계방법. 특허 제 0352706.
 정옥임(2002). 天·地·人 우리 옷 구성, 서울: 수학사.
 조정희(1998). 한복. 서울:형설출판사.

(2006년 11월 6일 접수, 2007년 1월 24일 채택)